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사신은 상호불가분의 관계이며

모두 너의 마음 안에 있으니,

결과는 모든 희망과 의심 너머에 있으리니.

부처의 결지는 저 멀리에 있는 것, 다다를 수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성품인 공성이 다름 아닌 진신, 법신입니다. 마음의 자연스러운 표현인 명료한 맑은 수용신인 보신입니다. 그리고 이 삼신 안에 내재돼 있는 하나의 모습이 자성신입니다.

이러한 붓다의 네 가지 신체와 차원은 항상 여러분 안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것이 아주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가 찾아오더라도 매일 정기적으로 수행하십시오. 생각의 흐름을 잘 관찰하고, 그 생각이 일어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십시오. 이제 막 명상을 시작한 사람이 밤낮으로 집중을 유지한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의 본성에 관한 명상을 시작할 때 짧게 여러 번에 나누어 하는 것을 권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다보면 점진적으로 마음의 본성을 인식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의 상태는 점점 더 동요하지 않는 확고함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당신을 괴롭히고 노예로 만들었던 생각들은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부처님은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부모에게 효순하되 시기 놓치지 말라”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달에는 어린이, 아버지, 스승, 부부의 날이 모두 담겨 있다. 가족과 스승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계들이지만, 현대 한국 사회는 이 같은 관계들이 붕괴되고 있다. 부처님 말씀을 통해 가족·사제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부모는 자녀에게

첫째,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 뒤를 보살피고 모자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자식에게 빚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때를 맞추어 결혼시켜 주어야 한다. 다섯째, 재물을 물려주어야 한다. <선생경> <종아함 33권>

부처님은 아들 라훌라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라훌라야,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사람들이 거울로 얼굴을 비춰보듯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즉 '이 일이 깨끗하고 옳은 일인가' 를 살펴야 한다. 그리하여 착한 일은 행할 것이며

스승님 전상사

광우 스님께 제자 정목 합장

악한 일은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든 행동을 이렇게 한다면 너는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다. <종아함 3권 (나온경)>

자녀는 부모에게

자식은 오사(五事)로서 부모를 대해야 한다. 첫째, 부모의 재물이 불어나게 해야 한다. 둘째, 부모를 대신해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한다. 셋째,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도와드려야 한다. 넷째, 불순하게 뜻을 어기지 않는다. 다섯째, 모든 것을 다 드러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 <종아함 33권 (선생경)>

부모가 병들었을 때에는, 자식들은 각기 방편을 구하여 다방면으로 치료해서 병고를 빨리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온몸이 경쾌하고 편안하며 체력이 견고해져서 수명이 길어지도록 해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의 내 이 몸이 세상에 있는 것은 부모의 생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부모의 은혜는 지중하다. <부모출생경>

남편은 아내에게

첫째, 아내를 여어빠 여겨야 한다. 둘째,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셋째, 장신구를 해

음식이나 진기한 보물만으로는 부모의 은혜를 갚지 못한다. 부모를 인도하여 바른 가르침(政法)으로 향하게 해야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된다. <부사의광경>

부처님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모시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모시고 천년만년 의복과 음식과 평상과 침구와 의약을 풍족하게 공양했다고 하자. 또 그 부모가 어깨 위에서 오줌과 똥을 누더라도 자식은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할 것이다. 부모의 은혜는 너무나 지중하다. 우리를 인양하고 길러주고 때때로 보살피우기를 쉬지 않은 까닭에 우리가 저 해와 달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공양하고 효순하되 그 시기를 놓치지 말라. <종아함 11권 (선지식품)>

제자는 스승에게

첫째,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둘째, 가르침을 잘 받도록 따라야 한다. 셋째, 일찍 일어나 배움을 청해야 한다. 넷째,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스승의 명예를 빛내야 한다. <선생경> <종아함 33권>



스승 광우 스님(사진 오른쪽)과 제자 정목 스님(유니방송 진행자)이 정각사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경전하신 구도자...은혜에 머리 조아립니다”

“그 옛날 진정한 진리가 어떤 것인지 묻는 칼라마인에게 부처님을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선과 악, 정과 사를 탐구함에 있어서 몇 가지 피해야 할 것이 있다. 전적으로 전통에 의지하는 것은 정당하게 선악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믿을 만한 사람이 들려주는 정보나, 혹은 바람 타고 온 소문, 그리고 경전의 권위 때문에,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하여, 그럴듯한 추론 때문에, 혹은 스승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따라서는 안 된다.

20대 시절 제 은사스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이야기는 제가 수행자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방향을 정해주고, 짙은 구도자였던 제 눈을 뜨게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은사스님은 참으로 타고난 법사이셨습니다. 저는 범보 때마다 스님의 법문을 들으려고 법상 아래 눈을 반짝이며 앉아 있었고, 그때 들었던 경전의 말씀들은 제 인생의 길잡이가 되었지요. 법문을 듣고 있으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제가 마치 사위성 기원정사에 앉아 직접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만큼 현장감이 있었습니다.

감정까지 날고 표정을 살려 하시는 은사스님의 법문은 사람들을 한 말씀, 한 말씀 속으로 속 빨려 들어가도록 하는 커다란 환희심과 신심의 결정체였습니다. 어찌 그렇게 많은 경전의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봐도 스님은 참으로 무궁무진 법문의 보고(寶庫)이셨습니다.

밝게 방문을 열어보면 스님을 늘 남전 대장경 같은 두꺼운 경전들을 펼쳐놓고 삼매에 빠지신 듯 공부를 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공부하시는 스님 모습을 보기만 하면 허뿔살아서 그런지 스님을 떠올리면 저는 늘 공부하시는 모습만 기억됩니다.

또한 은사스님은 그 시절 막 불교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있던 제게 열불 한 구절도 뜻을 모르고 읽거나 독송하면 신심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시며 낱말이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나이 어린 햇종이던 저는 그렇게 은사스님이 해 주시는 열불 지도나 경전 해석에 감격해서 자주 눈시울이 붉어

주어야 한다. 넷째, 집안일을 맡기고 자유롭게 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아내의 친족들에게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선생경> <종아함 33권>

아내는 남편에게

첫째,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 둘째, 일가친척을 잘 거두어야 한다. 셋째, 공순한 말씨를 써야 한다. 넷째, 남편이 돌아오면 칭찬하고 격려해야 한다. 다섯째,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준비해야 한다. <선생경> <종아함 33권>

스승의 도리

첫째, 기술을 잘 가르쳐야 한다. 둘째, 빨리 가르쳐야 한다. 셋째, 아는 것을 다 가르쳐야 한다. 넷째, 좋은 곳으로 나가게 해야 한다. 다섯째, 좋은 벗을 사귀도록 가르쳐야 한다. <선생경> <종아함 33권>

제자의 도리

첫째,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 둘째, 가르침을 잘 받도록 따라야 한다. 셋째, 일찍 일어나 배움을 청해야 한다. 넷째,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스승의 명예를 빛내야 한다. <선생경> <종아함 33권>

발해<절사는 법 99>/ 최정희, 우리출판사

지근 했습니다.

어느 날, 흥원 <범화경>의 심여시가 글자로서가 아니라 뼈에 사무치듯 체력으로 와 닿는 경험을 하고 뭇 뜻이 기뻐 웃다가 울다가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인도 성지 순례에서 스님은 붓다가야의 인도 스님으로부터 보리수 가지 하나를 선물 받으셨습니다. 순례 중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성을 들여 모시고 온 그 보리수 나무는 지금 정각사에서 제법 큰 나무로 자라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모시듯 보리수 나무에게 사랑과 정성을 다 바치시는 스님 모습을 기록하고 경건한 구도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강 같은 세월은 흐르고 흘러, 이제 스님의 세수 또한 녹록치 않으시어 옛날의 그 기개는 붉은처럼 녹아버렸습니다. 세상 모든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 자식 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아이가 되듯 이제 은사스님 또한 제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연세가 되신 것입니다.

늘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함께하지 못하는 불초 제자의 모자람을 이렇게 글로나마 뒤우쳐 보며 세상 은사스님의 은혜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부처님 법대로 살이라>에서 발췌

佛紀 2557年 癸巳年 Buddha's birthday |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사) 대선불교조계종

초대종정 법왕 동산 대종사
2대종정 덕진 진일 대종사
부종정 적연 운암 대종사

총무원장 현묵 혜승, 총회회장 현숙 법희, 포교원장 적공 현덕, 감사원장 대경, 교육원장 도현, 재무부장 보각, 교육부장 도응, 사회부장 영각, 사서실장 대안, 포교부장 도승, 총회사무국장 법성, 총회의원 도만, 경성, 도경, 보현, 보성, 보혜, 보찬, 도광, 혜성, 법사회장 법산(신동호), 법사 덕양(서재원), 학산(김대철), 덕산(심규봉), 남산(문동식), 덕연(황우연), 거산(김금석), 광덕(문도순), 자장심(에미혜), 송천(김문한), 신도회총무 보리심(신순임)



4월 12일 봉행된 제2대 종정·부종정 이취임식 대법회

초대종정사찰 : 대구 중구 대봉동 590-433 (011-532-3157)
종정주석사찰 : 대구 남구 대명2동 2040-3 (011-529-3132)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나갈 대덕큰스님, 법사님들을 입중을 환영합니다